

웹을 쓰다 보면 같은 탭을 하루에도 몇 번씩 연다. 은행, 지도, 번역, 영상 통화, 파일 공유, 전자계약, 클라우드 문서, 개발자 포털, 인증서 발급, 택배 조회, 심지어 병원 예약까지. 브라우저 북마크 막대는 이미 포화 상태고, 새 컴퓨터를 세팅할 때마다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다. 그래서 한동안 실무팀에서 쓰던 방식대로, 분야별로 믿고 쓸 수 있는 사이트를 정리하고,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 기준을 풀어본다. 덤으로 개인화된 링크모음 페이지를 똑딱 만드는 요령도 곁들였다. 필요할 때 바로 열어보는 사이트 주소모음은 작은 수고로 매일을 훨씬 덜 번거롭게 만든다.

기준부터 정리하기: 빠르고 안전하고 오래가는가

링크를 추천하기 전에 본다. 첫째, 접속 안정성. 1년에 몇 번씩 먹통이 되는 서비스라면, 대안이 있는지 점검한다. 둘째, 보안과 개인정보 처리. 국내 서비스는 본인인증과 휴대폰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소 수집 원칙을 지키는지, 이중 인증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셋째, 장기 지속성. 개인 개발자의 취미 프로젝트는 훌륭할 수 있지만, 업무에 쓸 링크모음이라면 서비스 종료 리스크가 낮은 쪽을 우선 배치한다. 넷째, 요금제. 무료 구간이 충분한지, 유료로 전환될 때 데이터 이동이 쉬운지 본다. 마지막으로 접근성. 모바일 화면과 데스크톱 모두에서 쓸 만해야 한다.

생산성의 바닥부터 쌓기: 캘린더, 메모, 문서

캘린더와 메모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구글의 조합이면 충분하다. 구글 캘린더는 공유와 통합이 강하고, 오피스 기능은 구글 문서와 시트, 슬라이드로 커버된다. 국내 조직과 파일을 주고받아야 하면 MS 365의 호환성이 편하다. 문서 협업을 자주 한다면 댓글 스레드, 버전 기록, 제안 모드 같은 세부 기능을 비교해보자. 둘러막기를 하다 보면 차이가 크게 느껴진다.

메모는 개인 루틴에 맞춰 선택한다. 빠른 캡처와 검색이 핵심이면 구글 킵이나 애플 메모가 가볍고, 문서 구조를 세밀하게 잡아가고 싶다면 노션이 유리하다. 노션은 위키와 데이터베이스를 섞어 팀의 링크모음 허브로 쓰기 좋다. 다만 속도가 느린 편이라, 브라우저 북마크 대체로 쓰려면 즐겨찾기 바로가기를 잘 구성해야 한다.



문서 표준 파일을 다루는 일이 잦으면 PDF 편집기와 전자서명이 필수다. 어도비 애크로벳은 안정적이지만 비싸고, 라이트한 편집만 필요하면 iLovePDF 같은 웹 도구로 충분하다. 전자서명은 도큐사인과 헬로사인이 대표적이다. 국내 공공기관 문서는 공동인증서 기반의 정부24 전자문서지갑이나 민원24 연계가 필요해서, 업무용 링크모음에는 두 체계를 모두 올려두는 편이 실전적이다.

커뮤니케이션: 메신저와 화상회의의 경계

기업용 커뮤니케이션은 슬랙,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구글 채팅으로 삼분된다. 슬랙은 통합과 검색이 확실히 강하고, 팀즈는 회의, 문서, 일정이 하나로 엮여 편하다. 구글 미트는 링크 하나로 들어가는 회의가 압도적으로 간단하다. 잦은 외부 회의가 있다면 누구나 계정 없이 접속 가능한 플랫폼을 우선 배치한다. 좁은 여전히 강력한 대안이며, 브레이크아웃 룸과 안정적인 녹화, 가상 배경 등 고급 기능이 필요할 때 점수를 뺀다.

메일은 지메일과 아웃룩이 표준이다. 검색 품질은 지메일이 낮고, 일정과의 깊은 연동은 아웃룩이 편하다. 수신확인이나 예약발송, 템플릿 같은 자동화 기능은 양쪽 모두 쓸 만하지만, 조직 정책에 따라 막히는 경우가 잦아 개인 워크플로가 반복적으로 깨지지 않도록 회사 표준에 맞춰 링크를 정리한다.

파일 전송과 공유: 크기 제한과 보안의 줄타기

다른 팀과 큰 파일을 주고받아야 하는 날, 전송 용량 제한과 만난다. 회사 네트워크에 따라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드롭박스의 속도가 천차만별인데, 접속 환경이 불안정한 파트너가 있다면 클라우드 기반 공유 링크 [사이트 주소모음](#) 대신 WeTransfer 같은 1회성 전송 서비스를 쓰면 낫다. 단, 민감한 자료는 링크 만료와 비밀번호를 반드시 걸어야 한다. 링크모음에 파일 전송 서비스들을 묶어둘 때는 옆에 최대 용량과 보관 기간을 메모로 붙여두면 효율이 오른다.

클라우드 저장소와 동기화: 혼합 운용의 현실

개인과 조직이 섞여 있으면 결국 구글 드라이브와 원드라이브를 함께 쓴다. 사실 NAS를 보유한 팀은 시놀로지 드라이브로 외부 공유를 열어두기도 한다. 여러 저장소를 섞어 쓰기 시작하면 폴더 구조가 동기화 도구의 논리와 충돌한다. 루트부터 문서의 주인을 분리하고, 프로젝트 단위의 공유 드라이브를 쓰는 편이 문제를 줄인다. 링크모음에는 각 저장소의 최상위 주소뿐 아니라, 팀별 최다 접근 폴더의 바로가기를 따로 놓아두는 것이 실제로 시간을 아낀다.

보안과 인증: 비밀번호 관리자는 습관이다

작업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비밀번호 관리자를 안 쓰는 대가는 커진다. 라스트패스 사태 이후로 1Password와 Bitwarden을 많이 쓴다. 1Password는 사용성이 뛰어나고, Bitwarden은 오픈소스와 자가 호스팅 옵션이 강점이다. 이중 인증은 가급적 인증 앱 기반으로 돌리고, SMS는 예비 수단으로 남겨둔다. Authy는 복구가 편해 초심자에게 유리하고, 회사 정책상 OTP 하드웨어 토큰을 써야 하는 환경이라면 YubiKey를 병행한다. 링크모음에 복구 코드 보관 경로를 적어두는 습관만으로도 위기 대응이 빨라진다.

피싱 판별과 광고 차단도 필수에 가깝다. 광고 차단은 uBlock Origin이 가장 무난하고, DNS 차단은 NextDNS나 AdGuard DNS로 가볍게 시작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쓰는 기기라면 라우터 레벨에서 설정하는 편이 낫다. 다만 일부 교육 사이트와 공공 서비스는 차단 규칙과 충돌하니, 예외 도메인을 따로 기록해두면 고생을 덜 한다.

개발자와 제작자를 위한 도구: 브라우저에서 끝내기

개발 환경을 따로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브라우저 기반 도구가 구세주다. 코드 샌드박스나 StackBlitz는 프론트엔드 프로토타이핑에 적합하고, Replit은 서버 사이드 예제까지 빠르게 돌려볼 수 있다. 데이터 처리는 Observable이나 Google Colab이 가볍다. API 테스트는 Postman 웹버전과 Hoppscotch가 좋다. 이미지 편집은 Photopea, 피그마는 협업 디자인의 표준이 되었다. 이런 링크는 자주 쓰는 템플릿과 함께 저장할수록 힘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피그마의 프레임 프리셋, 포스트맨의 환경 변수 세트 같은 것을 바로 부를 수 있게 하면 반복 작업이 크게 줄어든다.

학습과 미디어: 알고리즘에 끌려다니지 않기

짧은 강좌나 튜토리얼을 모을 때는 유튜브 재생목록과 함께 공식 문서 링크를 같이 둔다. 예를 들어 파이썬을 배운다면 Python Docs, Real Python, 문제풀이 플랫폼인 백준, 프로그래머스의 문제집 링크를 한데 묶는 식이다. 학습은 길게 보면 자료의 업데이트 주기가 중요하다. 출처가 오래되면 내용이 미묘하게 어긋난다. 링크모음에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를 함께 적는 이유다.

뉴스와 리서치는 큐레이션이 전부다. RSS를 써본 사람이라면 Feeder나 Inoreader로 돌아가면 마음이 편해진다. 매일 뉴스레터는 아침 시간을 잡아먹기 쉬우니, 분기마다 구독을 정리하고, 링크모음에는 아카이브 주소만 남겨둔다. 나중에 키워드로 다시 찾을 수 있다.

생활 편의: 지도, 교통, 쇼핑, 택배

지도의 정확도와 업데이트 속도는 지역마다 다르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이 세밀한 편이고, 도보와 대중교통 안내는 카카오가 다소 우세하다. 해외 여행을 자주 가면 구글 맵스의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필수에 가깝다. 링크모음에는 집, 회사, 자주 가는 공공시설의 장소 링크를 저장해두면 매번 검색할 필요가 없다.

교통은 항공권 비교의 스카이스캐너, 카약, 호텔 예약의 부킹닷컴, 아고다, 국내 숙소의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생활권에서 가장 자주 쓰인다. 대중교통 실시간 정보는 지자체 앱의 품질 차이가 커서, 기본 지도 앱과 병행해야 한다. 택배 조회는 스마일트래커 같은 통합 조회가 편한데, 공식 택배사 조회 링크도 함께 저장해두면 분실 문의가 빠르다.

쇼핑은 가격 비교와 정가 변동을 함께 본다. 다나와, 에누리의 가격 그래프는 의외로 협상용 근거로도 쓸 만하다. 해외 직구를 한다면 Keepa로 아마존 가격 히스토리를 확인하고, 배대지 링크와 관세 계산기를 곁에 둔다. 쿠폰과 카드 혜택은 주기적으로 바뀌니, 링크 옆에 만료일을 적는 습관이 중요하다.

금융과 공공 서비스: 인증 지옥을 건너는 가장 단단한 다리

은행과 증권사의 메인 링크는 자주 열지만, 진짜로 시간을 아끼는 것은 특정 업무의 바로가기다. 자동이체 관리, 증명서 발급, 해외송금, 수수료 안내 같은 페이지를 즐겨찾기에 올려두면 앱 깊숙한 메뉴를 파고 들어갈 일이 줄어든다. 국세청 홈택스와 정부24,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개인과 사업자 모두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공동인증서 갱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은 특히 자주 찾는 문서라 상단에 고정한다.

모바일 인증의 세대교체 속도가 빨라서 카카오 인증서, PASS, 네이버 인증서가 번갈아 요구된다. 특정 기관이 어떤 인증을 받는지조차 바뀌는 일이 잦아, 링크모음에 인증 요구사항을 메모로 적어두는 편이 안전하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공공 사이트는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가 있으니, 크롬과 엣지를 모두 준비한다.

스포츠와 중계: 합법과 편의 사이

프로야구를 포함한 스포츠 중계는 저작권이 촘촘하다. 프로야구 무료중계라는 검색어가 유혹적이지만, 비공식 스트리밍은 법적 위험뿐 아니라 악성 광고와 멀웨어, 과도한 트래픽 과금까지 동반한다. 실무에서 가족이나 동료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다. 먼저 공식 중계권자가 제공하는 무료 구간부터 확인한다. KBO 리그는 시즌과 계약 상황에 따라 지상파 스포츠 채널과 포털, 통신사 플랫폼에서 일부 무료로 중계를 열어준다. 네이버 스포츠, 카카오TV, 각 구단의 유튜브 채널은 프리시즌이나 하이라이트, 2군 경기, 연습경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통신사 묶음 요금제나 카드 혜택을 통해 정식 서비스의 비용을 사실상 낮출 수 있는지도 체크한다. 지역 제한이나 로그인 이 필요할 수 있으니, 링크모음 옆에 이용 조건과 지원 기기를 적어두면 스트레스가 준다.

이란의 계획은 완전히 쓰레기다!

종전 가능성은 1% 충격에 휩싸인 전 세계

서정욱TV 농협 301-0353-8318-31



야구 외에도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메이저리그, 테니스, F1 등 다양한 종목은 리그별, 국가별로 권리 구조가 다르다. 해외 중계의 경우 공식 스트리밍을 보려면 VPN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서비스 약관 위반 소지가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안전과 품질을 생각하면 공식 루트를 우선으로 채택하고, 무료로 보고 싶다면 하이라이트와 리캡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채널을 찾는 편이 현명하다.

검색과 번역: 빠르게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습관

검색은 구글과 네이버를 병행한다. 기술 문서, 오류 메시지, 해외 레퍼런스는 구글이 유리하고, 국내 생활 정보, 행정 절차, 지역 상권은 네이버가 빠르다. 둘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 단축키를 브라우저에 지정해두면 검색 스트레스를 크게 줄인다. 전문 논문은 구글 스칼라와 세미나 포털, 국내 논문은 RISS와 KCI를 곁들인다. 번역은 딥엘과 파파고, 구글 번역을 문장 성격에 따라 섞는다. 기술 문장은 딥엘이 자연스럽고, 고유명사와 신조어는 파파고가 강할 때가 있다. 번역 결과를 그대로 쓰지 말고, 원문과 나란히 보며 단어를 재배치하는 습관이 정확도를 끌어올린다.

미디어 처리와 크리에이티브: 빠르게 손에 익히는 도구

영상 편집은 브라우저만으로도 가능하다. 캡컷 웹버전은 초심자에게 충분하고, 간단한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는 이 조합이면 된다. 음성 편집은 오더시티의 웹 대안들이 자라나는 중이지만, 지금도 로컬 설치가 작업 효율이 낫다. 오디오에서 가장 자주 쓰는 건 잡음 제거와 노멀라이즈, 페이드 인 아웃이다. 이미지는 캔바로 대부분 커버가 가능하다. 링크모음에는 자주 쓰는 브랜드 템플릿과 색상 코드, 폰트 라이선스 문서를 함께 올려두면 제작 후반부에 실수를 줄인다.

협업과 프로젝트 운영: 보이는 것과 남기는 것

칸반 보드가 팀의 맥박을 보여준다. 트렐로, 지라, 애자일 보드는 성향이 갈린다. 작은 팀은 트렐로와 노션 보드면 충분하고, 스프린트 단위로 일정을 깔끔히 끊어가려면 지라가 제격이다. 중요한 건 규칙의 일관성이다. 티켓 제목 규칙, 라벨 체계, 마감일 입력 범위, 리뷰 요청 방법을 문서에 한 번 정리하고 링크로 고정한다. 코멘트와 결정의 근거를 남기는 버릇은 팀의 기억력을 확장한다.

개인 링크 허브 만들기: 무거운 북마크보다 가벼운 시작페이지

여러 도구를 써봤지만, 가장 유지보수가 쉬운 개인 링크 허브는 세 가지 경로에서 정착했다. 첫째, 노션으로 대시보드를 만들고, 즐겨찾기에서 새 탭을 노션 페이지로 연동한다. 위젯과 임베드로 캘린더, 할 일, 최상위 링크를 한 화

면에 모을 수 있다. 둘째, 라인드롭 같은 전용 북마크 관리자를 쓰고, 태그 중심으로 분류한다. 모바일과 데스크톱의 동기화가 안정적이다. 셋째, start.me 같은 시작페이지 서비스로 야에 위젯형 링크모음을 구성한다. 날씨, 환율, RSS를 붙여두면 아침 루틴이 빨라진다. 세 방식 모두 백업과 내보내기 기능이 있으니, 정기적으로 OPML이나 HTML로 저장한다.

아카이빙은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 쉽다. 링크가 사라지는 일은 흔하고, 문서가 갱신되어 예전 스크린샷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 웹캡처 도구와 함께 아카이브.today, 인터넷 아카이브의 Wayback Machine을 링크모음에 넣어두면 한 호흡이 길어진다.

자주 묻는 선택의 갈림길: 어떤 기준이 더 맞는가

클라우드 문서냐 로컬 앱이냐. 협업이 잦고 자료의 출처가 자주 바뀐다면 클라우드 문서, 개인 집중 작업과 레이어아웃 정밀도가 중요하면 로컬 앱이 낫다. 예산은 두 세트의 라이선스를 모두 두기는 어렵다. 팀의 작업물 성격을 곰곰이 본 뒤 결정해야 한다.

무료냐 유료냐. 광고와 개인정보, 지원 품질을 고려하면 적당한 비용을 내는 편이 마음이 편하다. 특히 비즈니스 필수 도구는 장애 대응과 SLA가 품질의 절반을 결정한다. 무료 티어로 시작하되, 3개월 안에 실제 사용시간과 저장공간, 동시접속 수를 체크해 유료 전환 시점을 잡는다.

한 대의 기기냐 여러 대냐. 집과 회사, 모바일을 넘나드는 사용자는 동기화 이슈와 캐시 충돌을 한 번쯤 겪는다. 브라우저 사용자 프로필을 분리하고, 각 프로필에 다른 로그인 세트를 적용하면 사고가 줄어든다. 링크모음도 프로필별로 분기하면 깔끔하다.

빠르게 시작하기: 오늘 바로 만들어 볼 개인 링크모음 5단계

1. 새 탭 페이지를 대체할 도구를 고른다. 노션, start.me, 혹은 간단한 HTML 파일 중 하나로 결정한다.
2. 가장 자주 여는 상위 12개 링크만 먼저 넣는다. 은행, 메일, 캘린더, 드라이브, 메신저, 지도, 번역, 검색, 파일 전송, 정부24, 국세청, 자주 쓰는 커뮤니티 정도가 적당하다.
3. 각 링크 옆에 한 줄 메모를 붙인다. 인증 방식, 최대 업로드 용량, 운영시간 같은 실전 정보를 적는다.
4. 모바일 홈 화면에도 바로가기를 심는다. iOS는 공유 시트에서 홈 화면에 추가, 안드로이드는 크롬 메뉴의 홈 화면에 추가로 충분하다.
5. 2주 뒤에만 한 번 정리한다. 주 1회 정리는 과하다. 자연스럽게 쓰다 보면 진짜 필요한 링크와 장식용 링크가 갈라진다.

링크를 저장할 때 확인할 짧은 체크리스트

1. 주소가 공식 도메인인지, 유사 도메인이 아닌지 확인한다.
2. 로그인 정보와 이중 인증 방법을 함께 기록한다.
3. 유료 전환 조건과 데이터 내보내기 경로를 메모한다.
4. 모바일과 데스크톱에서 화면이 모두 usable한지 테스트한다.
5. 백업 링크나 대체제를 한 개 곁들인다.

팀을 위한 링크모음 운영 요령: 누구나 찾을 수 있어야 진짜다

팀 단위로 링크를 공유할 때 가장 흔한 실패는, 사람 한 명의 머릿속에 구조가 들어있다는 점이다. 이름 규칙을 눈에 보이게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문서 링크는 [프로젝트] - [문서 종류] - [상태] - [날짜]로, 저장소 링크는 [팀] - [공

유 드라이브] - [폴더] - [권한]으로 통일한다. 검색 가능성을 높이는 태그도 미리 합의한다. 사내 온보딩 문서에 링크모음 사용법을 넣고, 분기마다 죽은 링크를 점검한다.

권한 관리는 성가시지만 필수다. 공개 범위를 확대할수록 편하지만, 개인 정보와 계약 정보가 엮인 링크는 접근 권한을 최소화해야 한다. 공개 링크만 모아둔 사본 페이지를 따로 만드는 방식이 부담을 덜어준다. 외부 파트너와 협업할 때는 유효기간과 비밀번호를 습관처럼 건다.

필드에서 자주 겪는 시행착오와 해결 팁

링크 썸네일과 제목이 제멋대로일 때가 있다. 오픈그래프 메타 태그가 없거나 부정확해서 생기는 문제다. 즐겨쓰는 링크라면 커스텀 아이콘을 붙여 시각적 구분을 돕는다. 북마크 관리자는 대개 파비콘 업데이트 기능이 있다.

링크가 느릴 때가 있다. 해외 서버와의 지연이나, ISP 레벨의 혼잡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같은 링크라도 모바일 데이터로 더 빨리 열리면, 네트워크 이슈 가능성이 높다. 반복된다면 링크모음에 대체 CDN 주소나 미리 링크를 함께 붙여둔다. 공식 문서의 버전별 링크를 쌓아두는 습관이 여기서 힘을 발휘한다.

조직 변경과 함께 도메인이 바뀌는 경우도 흔하다. SSO 체계가 변경되면 예전 로그인 링크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럴 때를 대비해, 링크모음 최상단에 회사 포털과 비상 연락망, IT 지원 티켓 시스템을 고정한다. 환경이 바뀔 때 가장 먼저 손대야 하는 곳이다.

키워드와 SEO, 그러나 사람 중심

링크모음이나 사이트 주소모음을 정리한 글을 검색으로 찾는 사람은 대체로 급하다. 그래서 이 글도 키워드를 의식하되,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맥락과 사용 팁을 우선으로 담았다. 프로야구 무료중계처럼 유입력이 큰 키워드는 유혹적이지만, 실사용자에게 가장 필요해 보이는 것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접근 경로와, 계약 변화에 따른 구독 전략이다. 같은 맥락으로, 금융과 공공 서비스는 로그인 링크만이 아니라 자주 쓰는 업무 페이지의 깊은 링크를 제시해야 실전성이 생긴다.

마무리하는 조언: 링크는 살고, 사람도 바뀐다

정리의 핵심은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적시성이다. 링크가 200개인 링크모음은 보관함이지, 일상 도구가 아니다. 잘 쓰는 12개, 가끔 쓰는 30개, 나머지는 아카이브로 내려보내는 구조가 효율적이다. 분기별로 20분만 투자해 죽은 링크를 지우고, 새로 자주 쓰게 된 도구를 끌어올리자. 링크모음은 그 사람의 일하는 방식을 닮는다. 기초 체력을 키워두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속도가 난다. 그리고 언젠가 팀원이 합류하거나 컴퓨터를 바꿔야 하는 날, 이 한 페이지가 전이 비용을 극적으로 낮춰줄 것이다.

